

2024. 1. 13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

처 장	한 상 학	2290-6810
팀 장	김 경 호	2290-6840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www.sisul.or.kr">www.sisul.or.kr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# “물 속 지하관로 점검도 드론으로”

##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유지용수 관로 안전진단에 수중드론 시범도입

- 청계천 유지용수 관로 중 노후화된 구간에 대해 수중드론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
- 조사결과 참고해 향후 청계천 유지보수 작업에 활용... 정기적 활용도 검토
- 공단의 한강 교량 드론점검에서 착안... 물 속 지하관로에까지 안전진단 확장 진행
- 한국영 이사장 “첨단기술 활용한 과학적·체계적 안전관리로 매력·안전 특별시 조성에 기여”

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, [www.sisul.or.kr](http://www.sisul.or.kr))은 청계천 지하에 설치된 유지용수 관로 정밀안전진단에 수중드론을 도입하여 과학적·체계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.

공단은 최근 16.85km 길이의 유지용수 관로 중 노후화된 중랑천 하부 250m 구간 내부 정밀안전진단에 GPS·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장착한 수중드론을 시범적용 하였다.

○ 청계천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좋은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였다.

- 수중드론을 활용해 횡단관로 내부를 선명하게 확인했으며, 누수 등 주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.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유지보수 작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, 향후 청계천 관로점검에 수중드론 활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.
  
- 청계천 정밀안전진단에 활용된 수중드론은 시속 7.2km로 최대 8시간 잠행이 가능하고,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.
  - 공단이 이번에 활용한 드론은 단수하지 않은 채 점검이 가능한 부단수(不斷水) 수중드론으로, 3대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높은 수압을 견디고 F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밀탐사가 가능하다.
  
-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‘자체 정밀안전점검 도입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시설물 보수 최적시점 예측에 활용하는 ‘첨단 자산관리기법’ 도입도 추진 중이다.
  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이번 수중드론은 공단의 한강교량 드론 점검에서 착안해 물 속 지하관로에까지 확장한 사항이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·체계적 안전관리로 매력·안전 특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관련사진〉

